축 사

조 영 택

(행정자치부 차관보)

“忠節의 고장” 이곳, 충남 아산에서 지방재정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재정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항상 지방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국재정학회 김준영 회장님, 한국지방재정학회 박원표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회장님, 그리고 지방재정과 관련한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방의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23일 IMF라는 악몽의 긴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돈을 빌린 대가로 IMF에 넘겨주었던 經濟主權을 되찾았습니다. 국가의 대외신인도 회복은 물론이고 국제적 위상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IMF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이나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IMF 졸업을 단순한 祝祭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나아가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종합·비교·분석하여 주민에게 實時間으로 공개하는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LBIS)으로 진정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모든 회계·기금 등을 하나로 통합·분석하는 재정수지분석시스템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비교해 나가야 합니다.

비용과 편익의 개념이 반영되는 성과주의예산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전시성·선심성 예산집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제도, 중기재정계획제도, 재정인센티브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 지방재정은 주민과 의회 그리고 자치단체 모두가 선택과 책임을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운영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학회 회원여러분!

지방의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재정력 확충을 통한 지역간 기회와 재원의 균등한 배분은 실질적 재정분권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과정에서 온 수도권과 지방간에의 발전격차는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지방은 기회의 결핍에서 오는 좌절의식이 팽배한 채,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전반의 성장 에너지를 약화시켜 왔으며, 지방의 재정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재정분권 없이 만성적으로 중앙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교부세법정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수확충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오늘 이 자리도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의 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반성해보고 분권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방향 제시와 이를 구체화 시켜나갈 수 있는 재원조달과 배분방식, 추진체계,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은 물론, 지방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양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은 지역간 富가 균형되고,고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지난 4년간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보여준 노력과 의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IMF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옛 말에 『肝膽相照』란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가슴을 털어놓고 진솔한 의견을 나누시며, 돈독한 友誼로 활발한 토론의 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미나가 열리는 기간동안 모두 편안하신 가운데 소중한 말씀 나누시고, 가까운 온천에서 편히 쉬시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年 8月 30日

행정자치부 차관보 조 영 택